백두산

3호 - 주체91(2002)년 4월 17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님께 경의 표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15일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 **김일성**주석의 립상이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총정치국장, 부위원장들인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 등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어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모셔 져 있는 홀에 들어 서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평양방송 주체91, 4월 15일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들의 결의문

오늘 우리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김일성**주석각하를 가장 경건하고 숭엄한 감정으로 뵈왔다.

주석각하께서 언제나 태양과도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들을 따뜻이 접견해 주시던 잊을수 없는 장소에서 붉은기에 휩싸여 계시는 그이를 뵈온 우리의 가슴에는 희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이 절절한 신뢰와 경모의 정이 가득차 있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정의와 진리를 모색하며 방황하던 우리들에게 주체의 빛발로 앞길을 밝혀 주시고 뜨거운 열과 정으로 참다운 삶의 보람을 안겨 주시여 우리 모두가 태양처럼 우러러 흠모하며 따르던 분이시였다.

김일성주석각하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이시였으며 자애로 충만된 인품과 가장 숭고한 인덕으로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신 성인중의 대성인이시였다.

력사는 **김일성**주석과 같이 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전무결하게 지니시고 당대에 하늘에 닿을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만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며 우뢰와 같은 명성을 떨치신 그런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을 알지 못하고 있다.

태양의 빛발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과 비상히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경험들은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실천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있으며 20세기에 이어 오늘에도 세계의 자주적인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일성주석각하를 진보적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그이를 오래동안 숭배하여 온 우리 모두의 숭고한 본분이며 그이의 사상과 정치리념,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해 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류의 밝은 미래가 있다.

우리들 세계각국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과 국제기구대표들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영웅, 세계제일의 정치원로이신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기념일로 뜻 깊게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김일성**주석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그이를 인류의 위대한 태양으로 변함없이 열렬히 흠모하며 받들어 모실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된다.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인은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는 법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각하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세기를 이어 추억하고 길이 칭송할것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종식된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백방으로 기울여 나갈것이다.

우리들은 **김일성**주석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령도를 모든 힘을 다하여 옹호하고 구현해 나갈것이다.

김정일각하는 뛰여 난 사상리론적예지와 걸출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시는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우리들은 지난 2월 백두산선언에서 천명된바와 같이 **김정일**각하를 새 세기를 이끄실 유일무이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고 받들며 그이의 위대한 사상과 정치리념이 세계의 발전과 국제관계전반에 구현되여 나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것이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확고부동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낼것이다.

조선의 평화와 사회주의,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위대한 태양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하여 온 지극히 정의로운 위업이다.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위업을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으로 간주하고 전 세계적범위에서 조선지지활동을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며 우리의 이러한 지지와 련대성은 조선인민이 최후승리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14일
금수산기념궁전

평양방송 주체91, 4월 15일

2 태양절 90돌 특집 3
- 자주시대의 빛발 주체사상
-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 백두산을 우러른다 3

5 종합
-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
- 태양절 90돐기념 대집단체조 진행
-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성원들 결의문
- 위인숭배의 열기
- ≪아리랑 축전≫ 함께 가실래요?

7 노작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2)

9 세기와 더불어
- 6장 5절 단합의 이념아래 (1)

10 노동신문 사설
-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 (1)

12 한국민족민주전선
-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집무보신다 (2)

13 투쟁보도
- FX 기종 신중히 결정하라
- 사제단, F-15K 내정철회 서명운동
- 31차 반미집회
- 노동법 개악음모 중단 결의대회
- 경주지역 재야단체 단일후보 추대

15 운동강좌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가지 논제(1)

자주시대의 빛발 주체사상

해마다 4월이 오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치게 안겨오고 주석님을 추억할 때마다 그분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시대와 민중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불멸의 역사적 공적부터 떠올리게 된다.

주체사상은 주석님께서 우리 민족과 행성의 전인류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이며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만년재보이다.

주체사상의 위대한 공적

주체사상은 인류사상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밝혔다. 이것은 인간의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천년동안 수많은 사상가, 철학가들이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위대한 진리의 발견으로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

원래 인간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존재이다. 그러나 지구상에 사람이 생겨나고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랜 세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자기 힘을 믿지 못했던 탓에 압제자들의 천대와 멸시, 착취와 억압을 숙명으로 감수하며 역사의 뒤안길에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주체사상의 조명을 받고 주체의 진리를 터득한 그때로부터 인류는 비로소 인간은 팔자에 포로된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 개척자임을 자각하고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수수천년 자기를 모르고 살아오던 인간의 비극사에 종지부가 찍히고 사람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고 인간의 본성대로 자기의 권능을 찾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역사의 새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창시와 더불어 시작된 이 역사의 새 시대를 사람들은 주체시대, 자주시대라고 부른다. 주체시대, 자주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세계 수억만 피압박민중이 시대의 중심에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영광찬 시대이다.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주체시대, 자주시대는 21세기에로 이어져 주체사상의 향도아래 인류역사를 더욱 찬란한 인간만세의 역사로 수놓아가고 있다.

인간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주체사상의 공적을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을 자기 운명의 주인, 개척자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개조자로 높이 내세워준 주체사상에 의해 사람이 자주적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 새겨봐도 주체사상이 이룩한 역사적 공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주체사상의 무궁한 활력

주체사상의 위대성, 그 무궁한 활력은 자주를 지향하는 진보적 인류가 모두 이 사상을 신봉하고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눈을 밖으로 돌려 세계를 편견없이 살펴보자. 그러면 주체사상이 날이 갈수록 세계적 판도로 더욱 급속히 보급, 전파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을 못본척하고 부인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20세기 60년대 초부터 세계적 범위로 확산되기 시작한 주체사상은 70년대에는 벌써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1978년 4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는데까지 이르렀다. 인도의 뉴델리와 시에라리온의 프리타운,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프랑스의 파리에는 대륙별 또는 지역별 주체사상연구소와 학회가 설립되어 있다.

세계 각국에 결성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수가 1천여개에 달한다고 전해진지도 근 10년이 된다. 올들어만도 이탈리아에서 로마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된 것을 비롯하여 기니, 키르키즈스탄 등 여러 나라에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새로 출범하였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소련이 붕괴되고 동유럽 제국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이 나라들에서 주체사상을 향도적 지침으로 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사실이다.

주체사상이 세계를 풍미하며 역사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웅변이며 시대의 증언이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현실을 낳고 사상의 위대성은 그 변혁적 역할을 통해 과시된다.

주체사상에 접하는 것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이 사회각계에로 급속히 파급되어 폭넓은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신봉자대열은 날로 늘어나 하나의 위력한 사회정치세력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에서는 각계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대토론회≫가 공개리에 개최되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학생들은 주체사상탑모형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주체의 진리에 충실할 것을 맹약하는 모임까지 가졌다.

1980년대 중반이후 주체사상파문이 대학가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각계에로 확산될 때 정부당국은 ≪수개 사단의 주사파세력이 사회각층에 뿌리박았다≫고 아우성친 바 있다. 오늘 그 세력은 백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사상이 보급,전파되는 경로를 보면 먼저 선각자들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그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쳐 대중 속으로 파급되게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 만으로 되는 끊임없는 증식과정인 것이다.

지금 한국민의 의식 속에서는 달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숭미, 공미의 사대굴종사상이 불식되고 민족주체의식, 자주정신이 함양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불신의 반미풍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주체사상에서 빛과 자양을 받아 뿌리내리고 자라난 결과에 이루어진 한국민의 의식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부시의 이른바 ≪악의 축≫발언이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얼마나 증폭시켰는가.

나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여 대중적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가열차게 전개된 것도 인간의 사상정신생활과 사회변혁운동에 미치는 주체사상의 거대한 영향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주체사상과 민족의 지위

위인의 높이는 무엇보다도 사상의 높이다.

예로부터 ≪정신이 위대해야 영웅≫이라고 하였다. 사실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며 그분께서 이루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에게 영원한 향도이념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주체사상을 주석님의 비범한 예지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천만지당한 평이다.

비범한 예지는 위인만이 지닐 수 있는 특출한 천품이다. 위인은 예지로 앞길을 밝히고 신생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예지와 지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승리를 이룩해 나간다. 그래서 예지를 위인의 등불이라 하는 것이다.

주석님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어느 위인도 따를 수 없는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천출위인이시다. 주석님의 이 특출한 천품을 떠나서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의 창시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주체사상창시의 비결을 이 하나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그것은 단견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주석님께서 민중 속에서 주체의 진리를 발견하셨다는 점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석님께서는 일찍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민중을 몽매하고 우매한 계몽대상으로만 보던 기성운동자들과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도, 가장 존엄있고 귀중한 존재도 민중이라는 주체적 관점을 지니시고 민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단결시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독창적인 길을 걸으시었으며 그 과정에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셨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체사상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민중을 위해 헌신해 오신 주석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중애에서 싹트고 자라나 알찬 열매를 맺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존중, 인간사랑의 이념이며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이념이다. 주체사상의 근저에 깔려 있고 그 전반에 관통되어 있는 뜨거운 인간애와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이 바로 만인을 매혹시키고 공감시키는 사상적 향기로, 만민을 끌어당기고 결집시키는 사상적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주석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민중의 토양에 씨를 뿌리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이 세계만민이 신봉하고 실천에 구현해 나가는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시대사상으로 되게 된 것은 이 위대한 사상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공동의 지향과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주석님의 넋이고 빛이며 힘이다. 주석님의 주체사상이 인류공동의 넋으로, 인류의 앞길을 밝히는 자주시대의 횃불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상승궤도로 견인해 가는 역사의 기관차로 공인되고 시대를 대표하고 이끄는 지도사상으로 부상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지위는 일약 시대의 첨단에서 역사를 자주의 궤도로 선도하는 영광된 민족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간의 가치가 사상에 의해 규정되는 것처럼 민족의 위대성은 무엇보다도 지도사상의 위대성에 의해 규정된다. 지난날 자기의 사상, 철학이 없어 외래사상에서 갈길을 찾아 헤매던 우리 민족이 아닌가. 그러던 이 민족이 만고절세의 위인을 모셔 시대사상을 창시하고 역사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니 자랑이면 이보다 더 큰 자랑, 영광이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데 있으랴.

오늘 주체사상의 보물고는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인류의 영원한 향도이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어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시대의 영원한 빛발, 불멸의 주체사상과 더불어 영생하신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주석님과 주체사상을 더욱 빛내이신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새길수록 주체의 기치밑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반드시 승리에로 종착시켜야 할 사명감을 더욱 자각하게 되는 마음이다.

≪자주학회≫ 이봉학 - 구국전선 주체 91, 4월 15일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어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북은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을 고립압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게다가 자연재해까지 계속 겹쳐 식량사정을 비롯한 나라의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선군영도, 선군정치로 역사에 유례없는≪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시었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는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고 강성대국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민족사에 불멸할 업적을 쌓으시었다.

이 영광스러운 노정위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었다.

수령의 영생위업은 건국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고스란히 이어 나가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위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을 잃은 크나큰 상실과 절통한 비분으로 하여 피눈물을 뿌리며 모진 슬픔 속에 몸부림치고 있던 이북민중을 손잡아 일으키시어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시었으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 나날에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실 숭고한 충정의 결심을 다지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주체83(1994)년 7월11일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의사당에 정중히 모실 것을 발기하시었다.

금수산의사당은 이북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가 지어 올리도록 하신 주석님의 집무처이며 주석님께서 오랜기간 계시면서 혁명과 건설, 세계자주화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 오신 창조의 전당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정중하고 경건하게 모시어 주석님께서 민족사와 더불어 영생하시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개관하며 그 주변을 보다 품위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잘하도록 전군, 전민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무려 30여차의 현지지도와 40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고 어버이주석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도록 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장군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에는 천년만년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다해도 주석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이북민중과 온 겨레의 드팀없는 신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어버이주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가 영원히 빛나고 주석님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계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7년 7월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의 공동결정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채택하도록 하시었다. 결정서는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 오르신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주체연호를 제정한다는 것과 주석님께서 탄생하신 민족최대의 축일인 4월15일을 태양절로 제정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헌법을 채택하여 어버이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었다.

1998년 9월5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장군님께서는 새로 채택될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라는 것을 성문화하도록 하시었다.

이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주석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입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었다.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영도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1994년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이 구호에는 주석님의 주체사상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튼튼히 거머쥐고 그 기치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이북국민의 신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교시를 창조와 건설의 대강으로 여기시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이끄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마다 첫 사업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주석님을 찾아뵙고 경건히 인사를 올리고 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맹세를 다지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고 현지지도의 길위에서는 녹음으로 주석님의 교시를 들으시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 방도를 구상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주석님의 영도사적이 깃들어 있는 인민군부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을 쉬임없이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석님의 현지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도록 이끄신다. 장군님께서는 당과 군대, 정권도 주석님의 생전의 뜻대로 강화시키시고 경제, 문화건설도 주석님의 유훈대로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

실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가장 빛나고 완벽하게 실현하신 충성의 귀감이시며 주체위업계승완성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기성철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5일

백두산을 우러른다 2

통일의 성산 백두산

오늘날 백두산은 혁명의 성산으로써뿐 아니라 우리 민족 통일운동의 새 역사가 창조되는 통일의 성산으로써도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반백년을 넘게 지속된 민족분열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면 백두산을 알아야 하고 백두산을 도와야 하며 백두의 혁명정신과 혈통을 굿굿이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남의 민심이다.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 조국이 있으며 백두산과 함께 우리 겨레의 단합이 있고 우리 조국의 통일도 있다. 넋을 지녀도 백두산을 넋을 지니고 뜻을 따라도 백두산장군의 뜻을 따를 때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이룩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이남 민중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어제날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중이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빛을 뿌리신 백두산을 희망봉으로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미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 이남 민중은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태양의 성지로 간직하고 백두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만을 우러르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남 민중은 백두산을 너도 나도 찾아가고 있다. 평양을 찾는 인사들은 물론이고 방북의 길이 막히면 남의 나라 땅을 끼어서라도 기어이 백두산정에 오르고 있다.

지난날 2천만 우리 동포들이 조국광복의 푸른 꿈을 안고 **김일성**주석님께서 계시는 백두산 혁명근거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그때처럼 오늘은 우리 남녘 겨레들이 조국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을 찾아 끝없이 흘러드는 것이다. 백두산에 오른 이들은 국토분단의 기운을 제일 가슴아프게 감각하며 백두의 넋을 심장깊이 새기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분투해야되겠다는 불같은 결의와 각오로 가슴들을 끓이고 있다.

몇해전 평양을 방문한 기회에 오매불망 마음속으로만 오르던 겨레의 성산에 올라 천하제일산 백두산 해돋이를 부감한 이남의 통일산악회 전채환부회장은 자기의 목격상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백두산의 해돋이, 정녕 그 순간은 백두서막이 받들어 올린 위대한 태양의 광명속에 이 강토 삼천리가 남도 북도 따로없이 하나로 태어나는 격동의 시각이였다. 오! 백두산일출로 밝아오는 통일이여!

조종의 성산 백두의 하늘가에 솟는 찬란한 태양은 그대로 통일 조국의 상징이신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으로 떠올라 온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다. 저 백두의 태양이 발산하는 무한대의 빛과 열과 인력앞에 기나긴 분단의 어둠이 무엇이며 냉기 서린 대결의 동토대가 무엇이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다. 아! 일구월심 통일을 갈구하는 온 겨레가 우러러 따르는 통일의 영수 **김정일**장군님.≫

정녕 백두산의 해돋이처럼 삼천리강산을 환히 비춰줄 사상이론적 예지와 이 나라 모든 산악과 장강들을 한품에 안은 백두산과도 같은 넓은 도량과 한없이 따사로운 포옹력,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는 백두서막과도 같이 우리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광명한 미래에로 이끌어 가실 영도의 거장이 바로 **김정일**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자주 오르신다. 그때마다 장군님께서는 한 지맥으로 잇닿은 삼천리강토가 둘로 갈라진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바치고 계신다고 한다.

주체61 (1972)년 6월, 사선을 헤치고 방북한 통일혁명당(한민전 전신) 대표단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이며 조국의 상징이라고, 우리 민족의 혈맥은 모두 백두산과 이어져있다고 그래서 백두산은 어머니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백두산에 오르면 남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는데 그러면 저 멀리 남해와 한라산까지 보이고 남녘 민중의 얼굴이 보이는 것만 같다고 절절히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조선을 알자면 백두산을 보아야 하며 조선에서 혁명을 하려면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시며 통일혁명당 대표단의 백두산 등정을 위해 청년돌격대를 무어 1, 2미터 높이로 덮힌 눈을 파내어 등산길을 마련해주시는 배려를 돌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의지는 백두산에서 시작된 민족의 생활권을 기필코 다시 잇자는 것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도로를 남북을 연결하는 산줄기처럼 백두산기슭에서 시작된 철길은 남북을 연결하는 강줄기처럼 모두 하나로 잇자는 것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렇듯 불굴의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하고 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통일의 주체적인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숭고한 애국애족의 광폭정치로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시며 모든 통일운동을 확신성있게 주도해나가신다. 또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통일행사들이 백두산을 원점으로 하여 거행되도록 하시어 백두에서 시작된 통일대행진이 한라까지 이어지도록 정열적으로 이끄시고 계신다. 그리하여 오늘 백두산은 통일운동을 발원시키고 확산시키는 통일운동의 성지로 되고 있다.

주체77 (1988)년 8월 광복절을 맞으며 백두산정에서 국토분단대행진출정식에 이어 1985년 7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출정식, 1990년 8월에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회 범민족대회개막과 조국통일촉진백두한라대행진출정식이 백두산에서 거행되었다. 이 모든 행사들에는 남과 북, 해외동포들과 수많은 외국인들까지 참가하여 한결같이 민족단합을 주장하였고 민족통일을 절규하였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통일행사는 오늘 평양과 금강산, 서울과 한라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7천만 겨레 모두가 동참하는 전민족통일대행진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백두산은 또한 민족대단결의 성지이다. 백두산을 찾는 답사길에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다 참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백두산은 온 겨레의 결집장으로 되고 있다. 우리 겨레의 백두산답사길은 **김정일**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로 이어지고 겨레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길로 되고 있다. 이남의 각계층 민중과 해외교포들은 백두산답사길에서 애국애족을 신념화하고 통일애국투사로 자라나고 있다. 이렇듯 백두산을 우러러 통일애국투사들이 늘어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조국통일의 여명도 찬연히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로 우리 민족통일의 활로는 승리적으로 개척되고 있다. 주체89 (2000)년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과감한 결단으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반목과 대결의 악순환에 가득차던 남북관계를 화합과 통일의 궤도에 올려세우고 전반적 통일운동을 급격히 앙양시킨 민족사적 사변이였다. 참으로 백두산은 태양의 성산, 혁명의 성산, 통일의 성산이며 백두태양은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고 온 겨레를 통일된 강성대국향도에로 이끌어주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다.

오늘날 우리 이남 민중속에서 백두산에 대한 숭상의식도가 급격히 고양되고 운명도 미래도 그에 모두 맡기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숭배열기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 이남의 주요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과 인터넷 사이트들에 백두산3대장군의 존귀하신 영상과 그분들의 위인상과 영도업적을 찬양하는 기사가 수백번씩 실리고 있으며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백두산 전설집≫, ≪백두산의 품≫등 각종 출판물들이 공개 합법적으로 서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백두산사진전이 개최되며 대학가들에 백두산천지와 진달래꽃을 형상한 ≪그날이 오면≫, ≪백두산 자락 아래 밝아오는 새날이여≫ 등의 대형화판들이 나붙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유격대의 민족해방투쟁을 형상한 금강가극단의 ≪백두산≫공연이 대성황리에 열렸다. 이것은 말그대로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뜨거운 충심, 백두태양에 대한 숭배열기, 태양의 열풍인 것이다.

오늘도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서시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하고 계신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자긍심과 장군님계시어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 통일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신념은 이남 민중의 가슴속에서 더욱 거세게 분출하고 있다. 지금 이남의 경향 각지에서는 위인칭송의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백두태양찬가≫가 울려퍼지고 있다.

백두산을 마음의 고향으로, 억센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이남 민중의 고결한 신념과 의지는 21세기에도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끝)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박광기
구국의 소리 - 주체91, 4월 3~6일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개관,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

14일 평양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 개관 및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 개막식이 진행되였다.

대동강반에 1만 2,000여의 건축면적을 가지고 독특한 형식으로 일떠선 전시관은 국내전시회는 물론 국제적인 화초박람회도 진행할수 있게 현대적으로 꾸려 졌다.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장에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활짝 피워 내놓은 **김일성**화 5,500여상과 **김정일**화 그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되여 있다. 또한 외국에서와 조선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에서 보내여 온 **김일성**화들이 전시되여 있다.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개관 및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태양절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국에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범민련공동사무국대표단, 재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재미동포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들과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외국손님들이 개관 및 개막식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비서의 개막사에 이어 인도네시아 문화 및 관광성 부상 스리 하스딴또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 보았다.

평양방송 주체91, 4월 15일

태양절 90돐기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기념하여 10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14일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장은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형상한 가장물과 ≪90돐≫이라는 글발, 여러가지 전광장치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여 있었다.

김영남,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성, 중앙기관, 사회단체 일군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온 재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대표단들과 교포인사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았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을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과 대표들, 주체사상연구조직 및 친선단체대표단과 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배경대에 **김일성**화와 ≪영생≫, **김정일**화와 ≪영광≫, ≪축하≫라는 글발이 련이어 새겨 지고 축포가 터져 올랐으며 찬란한 태양이 누리를 밝히며 솟아 오르고 경기장바닥에는 춤바다가 펼쳐 졌다.

21세기의 대기념비적걸작으로 창작완성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아리랑민족≫, ≪선군아리랑≫, ≪아리랑무지개≫, ≪통일아리랑≫ 등 여러 장으로 구성되여 진행되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끝나자 축포가 또다시 터져 오르고 춤바다, 꽃바다가 펼쳐 졌다.

평양방송 주체91, 4월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결의문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성원들이 결의문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을 인류공동의 명절로 가장 성대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장구한 인류사에 일찌기 없었던 태양절을 사회주의조국에서 맞이하는 무한한 영광과 행운을 지닌 우리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전체 성원들은 가슴속에 차 넘치는 다함 없는 경모와 뜨거운 감사의 정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건국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삼가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거리마다 명절의 꽃바다 설레이고 온 세상 인류가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가 화창한 4월의 봄 하늘가에 울려 퍼지는 현실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환하신 미소가 뜨겁게 어려 와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돌이켜 보면 장장 80여성상에 이르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한평생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하는 애국, 애족, 애민의 위대한 한평생으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따를수 없는 가장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광복전의 진두에 나서신 때로부터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모든 고생과 아픔, 슬픔을 다 체험하시며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 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시며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의 존엄과 행복이 최상의 경지에서 꽃 펴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안겨 줄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시며 통일된 하나의 강토에서 만복을 누려갈 민족의 래일을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에 불멸할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한평생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 태우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국땅에서 사는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세계적인 격변과 파동속에서도 우리들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 주시였으며 한없는 도량과 무한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애국애족의 보람찬 길로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끝 없는 헌신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격동의 20세기를 위대한 **김일성**조선의 세기로 빛내여 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 쌓아 올리신 애국애족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세기와 더불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조국의 정세가 가장 준엄하고 복잡했던 지난 7년간 세상에 전무후무한 탁월한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의 광풍을 쳐 몰아 내시며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주체조선의 대외적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시였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에 올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 따라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보고 있으며 장군님계시여 위대한 **김일성**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영원히 빛난다는 진리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잘 받들어 주체위업과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일편단심 오로지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해외의 애국충신으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 불 타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해외교포조직들을 신념의 애국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더 많은 동포군중을 묶어 세워 좋은 날이나 어려운 날이나 조국과 운명을 끝까지 함께 하는 영원한 장군님의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최대의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강성대국으로 튼튼히 다져 나가는 여기에 참다운 애국이 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며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보다 특색 있게 기여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과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위대한 장군님대에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김일성**조선, **김일성**민족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7천만 민족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의 다함 없는 경모와 열화 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생을 삼가 기원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와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21세기의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90돐을 조국에서 기념하고 있는
해외동포대표단, 방문단 성원일동
삼가 드립니다
주체91(2002)년 4월 14일

평양방송 주체91, 4월 15일

태양절을 맞은 민중들의 위인숭배 열기

≪태양회≫, ≪조국통일의 구성≫ 출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태양회≫의 명의로 된 ≪조국통일의 구성≫이라는 팜플렛이 출판됐습니다.

총 90쪽으로 된 팜플렛 첫 페이지에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태양사진을 모시고 그 다음 페이지들에는 주석님께서 문익환목사를 접견하신 사진을 비롯해서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주석님의 영상을 수록한 여러상의 사진들의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등 조국통일과 관련한 **김일성**주석님의 저작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팜플렛은 지금 대학가를 비롯한 각계층 속에 널리 보급되어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이하는 각계 민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4월 15일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민중들의 경모열기

태양절을 맞으며 각계 민중들속에서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울산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금동서에 **김일성**주석님과 같이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민중적 영도자는 없었다.

김일성주석님의 사상은 민중을 위한 사상이고 그분의 정치와 모든 활동도 다 민중을 위한 것이었다. 주석님께서는 한시도 우리 이남 민중을 잊으신 적이 없다. 기쁜 날도 슬픈 날도 불행에 우는 이남 민중을 구원하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셨다.

태양절을 맞으니 한평생 이남 민중을 위해 온갖 노고와 심혈을 바치신 주석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절로 난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서울 땅 곳곳에는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6.25전쟁때 포화를 헤치시고 서울을 찾으시어 우리 민중에게 주인다운 삶을 안겨주시었다.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을 주시고 농민들에게는 땅을 주셨다. 여성들에게는 남녀평등권을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셨다. ********시어 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셨다.

정말 주석님의 그 사랑과 믿음속에 난생처음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던 그때를 잊을 수 없다.

주석님께서 안겨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꿋꿋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주석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영생하신다.≫

재야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통일대강을 마련하시어 우리 겨레에게 통일조국의 창창한 내일을 안겨주셨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님께서는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다. 주석님의 그 평생의 노고속에 우리 민족의 유일한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제시할 수 있었다.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대로만 하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문제없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나가시니 머지않아 통일이 이룩되리라고 확신한다.

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받들어 조국통일성업실현에 한몸 바치면서 통일을 위해 바치신 주석님의 평생의 노고를 풀어드리는데 적으나마 기여하겠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4월 15일

회고록 160여개 나라에서 애독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발권 10돌이 된다.

회고록은 1권부터 8권까지 출판되었다.

이 회고록을 일본, 미국, 인도, 체코, 루마니아, 유고, 캄보디아, 영국 등 각국의 출판기관들과 단체들에서 대량 출판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1권부터 8권까지 근 10만여부를 발행했다.

회고록이 발권된 후 현재까지 160여개 나라에 보급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집트, 시리아, 몽골, 오스트리아, 탄자니아, 페루, 나이지리아, 토고 등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는 회고록에 대한 연구토론, 감상발표, 강연, 독보 등 모임들이 연례행사로 벌어진다.

말리에서는 4월15일부터 7월8일까지를 회고록독서월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포르투갈 전 대통령, 가나와 페루의 전, 현직 국회의원들, 프랑스와 인도, 베네수엘라의 도시시장들과 국회의원들, 대학 총장들과 교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들도 회고록을 탐독하고 있다.

제반 현실은 **김일성**주석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인류사와 더불어 영원할 세계적 재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4일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 축전≫ 함께 가실래요?

오는 4월 29일(월)부터 6월 29일(토)까지 2달간(1일 1회 공연 일요일제외) 평양의 5 · 1경기장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하 ≪아리랑≫)이 열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이라면 모두 아는 ≪아리랑≫. 흔히들 ≪아리랑≫이라 하면 한국인들의 애환과 한, 저항정신을 대변하는 노래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민족을 닮았다는 ≪아리랑≫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어떤 것일까?

이번에 열리는 ≪아리랑≫은 이북에서 85번째로 열리는 집단체조(매스게임)이다. 이북에서 집단체조는 광복직후부터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행해지는 행사이다. 1946년 5월 ≪소년들의 연합체조≫에서 시작된 집단체조는 지금까지 약 84개의 작품이 만들어 졌으며 총 900여회에 걸쳐 상연, 매년 약 1600만명이 관람한다고 한다. 이렇듯 이북에서의 집단체조는 이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기념행사이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아리랑≫은 밝은 낮이 아닌 어두운 저녁에 펼쳐져 조명효과를 최대한 살리고 거대 영상 배경막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기술과 형식을 도입했다. 출연자의 규모도 예술인 청년, 학생등 10만 여명으로 사상 유래 없는 대규모 행사이다.

지난 2000년도부터 기획 추진된 이번 ≪아리랑≫ 공연은 수용인원 15만석의 5 · 1경기장에서 펼쳐지며 총 4개의 장과 서장, 종장,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연을 들여다보면 2장 2경에는 전통의상을 입은 1500여명의 유치원생과 인민학교(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공연이 준비 되어있고 3장 3경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출연하여 평양의 야경을 형상화한다. 전체 상연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로 지금껏 우리가 들어오던 정치적 집단체조 대신 민족적 색채가 두드러지는 자리로 구성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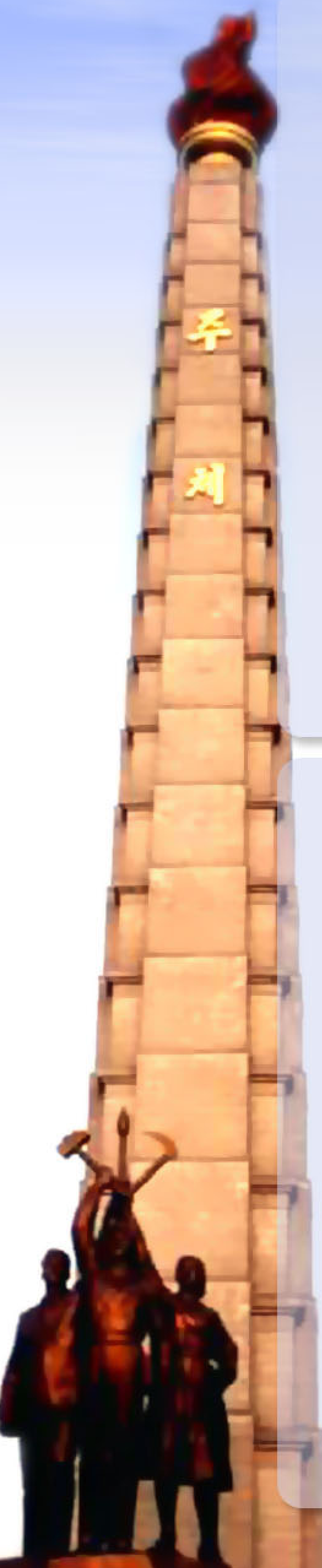
이북의 ≪조선신보≫는 현재 반 이상 공개된 종합연습 장면을 ≪선남, 선녀가 국부조명(스포트라이트)에 비쳐 지면서 하늘(무대 오른쪽)에서 내려오는데 경기장 전체가 밝아 진 순간 그 모습이 없어진다≫라며 ≪이선남폭포≫라는 장면의 신비로움을 보도했다. 또 ≪1천 수백명 무대출연자들이 흰 천을 가지고 눈보라를 형상 하는가 하면 푸른 천을 가지고 두만강의 사나운 물결을 형상화한다≫며 경이로움을 전했다.

현재 ≪아리랑≫의 준비상태는 총연습을 마치고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20여만명의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과 함께 평양시가지는 갖가지 깃발과 환영 구호, 대형 그림판들이 세워졌고 관광객이 묵을 숙박시설 준비에 한창이다. 월드컵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아리랑축전은 단순히 행사관람과 여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평양에서 열리는 이번 아리랑 축전이 말로만 들어오던 이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들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기회를, 더 나아가서는 오해와 불신을 벗어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김종원기자
유뉴스 2002/04/1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3)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 주체91(1992)년 4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위하는 참다운 인민의 혁명무력을 건설하신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일제의 총검밑에서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자면 자기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시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건군위업을 수행하는 길에 나서시였으며 지금으로부터 60년전 안도의 수림속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구호를 내세우시고 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인민에 대한 군대의 헌신적 복무정신과 군민일치, 이것이 우리 혁명무력으로 하여금 강대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할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였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인민과 함께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있지만 수령님께서 키우신 일당백의 혁명무력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하여드린 것은 수령님께서 군건설과 혁명전쟁들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응당한 평가입니다. 수령님을 공화국대원수로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우리 당은 수령님의 군건설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혁명무력을 백전백승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인민으로 키우신 것입니다.

인민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자면 그 주인인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람의 품격과 가치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입니다.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인민을 자주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며 인민에 대한 최대의 죄악은 인민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인민을 사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우리 인민을 자주적인 혁명의식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인민은 자주의식으로 각성되여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길에 들어섰으며 자기의 존엄과 위대성을 당당히 떨쳐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높은 자주정신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침으로써 자주성이 강한 인민으로, 불패의 위력을 지닌 위대한 인민으로 되였습니다.

인민대중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며 가장 공고한 단결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입니다. 자기 수령, 자기 당을 믿고 그 두리에 뭉쳐 혁명을 하겠다는 높은 각오와 강의한 의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가장 공고한 단결의 사상적 원천입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란 말은 우리 나라에서만 쓸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일심단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고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투쟁을 벌려온 그때로부터 시작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높은 수준에서 전면적으로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불패성의 원천이며 그 어떤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 있는 기본요인입니다. 이번에 수령님의 탄생 80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고 이 힘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하다고 하면서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도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자주정신이 가져다준 결실입니다. 오늘과 같은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사소한 동요나 주저도 모르고 혁명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심혈을 기울이시여 우리 인민을 자주정신이 강한 혁명적 인민으로 키워 주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우리 인민이 강한 자주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경탄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정신에 의거하여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세워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두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인민을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 간고한 투쟁을 벌리시여 마련하여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행복의 요람입니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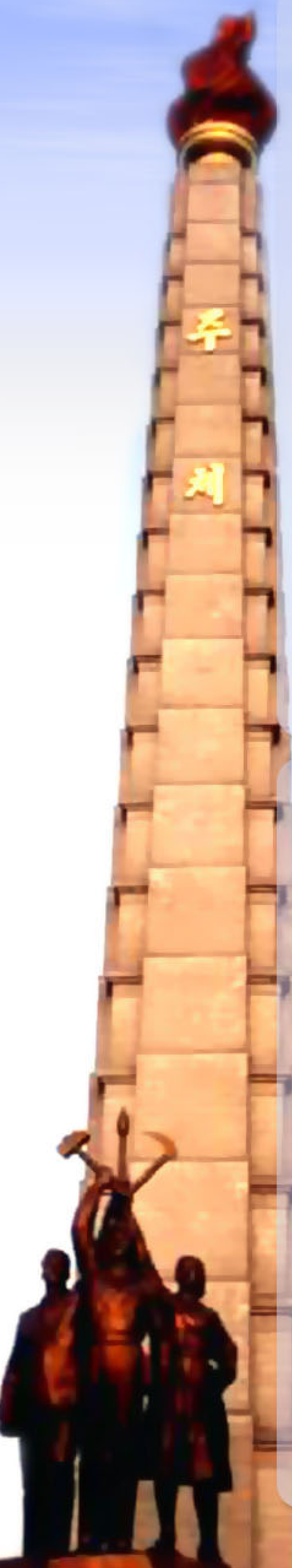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를 세우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로부터 공부하고 병치료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것을 기본시책으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생활에 대하여 아무 근심걱정도 모르고 살고있습니다. 인류사회가 생겨난 이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생활에 대하여 근심걱정을 모르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다 넉넉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건설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평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있으며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여 나가고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대폭 높이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낮은 생활비를 더 많이 높여 생활수준에서의 차이를 줄여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세계에는 우리 나라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물질생활에서 빈부의 차이가 날로 커가고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이 더욱더 빈궁화되여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짓

→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 의무일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러르는 수령님을 모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밝히고있는 사회는 인민을 위한 사회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썩고 병든 자본주의생활에 비하여 자기들이 누리는 사회주의생활이 얼마나 값높고 보람찬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있습니다.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우리 인민은 물질문화생활에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뿐아니라 누구나 사회적으로 존엄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받으면서 보람있게 살고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기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으로서의 값있는 생활을 한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착취사회에서 절대다수 근로인민들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는 기본요인은 착취계급의 특권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특권을 허용하면 그것이 인민들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분공과 직위에서는 차이가 있어도 누구나 혁명동지로서 존엄과 인격에서는 차별없이 다같은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주권을 다같이 행사할뿐아니라 당과 근로단체 조직에서도 높고 낮은 사람이 없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생활하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권세나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가 인민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더 많이 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됩니다.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공로를 세운 사람이 영웅도 되고 사회적으로 더 존경을 받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사회로서의 우리 사회의 참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한집안식구처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동지적으로 협력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여기에 서로 반목질시하고 물고뜯는 자본주의생활과 구별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생활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화목한 생활은 수령과 사회성원들사이, 사회성원들 호상간의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고있으며 이것은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수령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인덕의 정치를 베풀기때문에 수령과 사회성원들사이에 가장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성원들 호상간에도 동지적 사랑과 혁명적 의리의 관계가 꽃피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을 가장 보람찬 생활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고 그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역사적 경험은 영도의 계승성이 옳게 보장될 때에는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혁명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며 나아가서 이미 쟁취한 사회주의전취물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의 역사적 사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개척하고 전진시킬뿐아니라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와 영도체계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빛나는 선견지명은 일찍부터 혁명위업계승의 역사적 필연성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착실히 준비하여 오시였으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와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가장 고귀한 업적입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께서는 만대에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하나도 덜지 말고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수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우리 인민은 역사적 체험과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행복인가 하는 것을 가슴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영광스럽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될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오늘의 복잡한 정세를 놓고서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깊이 느끼고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충성과 효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절절한 염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의 벗들은 한결같이 우리 일군들에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잘 모시는 것은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고 하면서 수령님을 더 잘 모셔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세계혁명의 원로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의 권위가 높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빛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우리의 숭고한 민족적 의무일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우러르는 수령님을 모신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사상감정은 수령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기 수령님의 혁명역사학습자료를 비롯하여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책과 글을 적지 않게 써냈지만 모든 사람들이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을 다 알고있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수령님께서 쓰신 회고록을 읽고 사람들은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더욱 탄복하고있습니다. 회고록이 비록 겸허한 필치로 씌여져있지만 수령님의 혁명투쟁역사가 너무나 위대하기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그토록 탄복해마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부이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입니다. 회고록을 많이 찍어내여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온 민족이 그것을 깊이 학습하고 거기에서 혁명의 원리를 배우고 혁명하는 원칙과 방법을 배우며 조국과 민족과 인민과 혁명동지를 사랑하는 고귀한 정신을 배우게 하여야 합니다. 회고록을 더 많이 번역출판하여 세계인민들속에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교양자료를 하나 만들어도 품을 들여 잘 만들어야 합니다. 수령님의 회고록과 같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책과 글을 더 많이 써내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수령님의 위대성과 업적에 대한 교양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

(내일 계속)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5. 단합의 이념아래 (1)

나는 류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였다. 류하는 남만일대서 흥경, 통화, 화전, 반석과 더불어 조선독립운동의 중요한 책원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이 지방에는 구세대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 투사들도 많았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역사에서 첫 무관학교로 널리 소개되었던 신흥강습소도 남만의 류하현에 속한 하니하라라는 곳에서 설립되었다.

우리가 류하를 행군로정의 하나의 목표로 정한 것은 이 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중적 지반을 넓히기 위한 정치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류하뿐 아니라 삼원포, 고산자, 해룡, 몽강 등 안도까지의 귀환로정에 있는 지방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유격대의 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의 한 측면도 여기에 있었다.

원정부대는 먼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룡 등지에 머물러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9.18사변후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적의 백색테러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 해동안 피와 땀을 바쳐 꾸려놓은 조직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성원전원이 잡혀가거나 학살되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조직들도 있었다.

9.18사변의 여파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룡지방이었다. 해룡에는 일본령사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고장보다 더 깊숙이 뻗어있었다. 조직선을 찾으려고 안타깝게 모대기는 사람들이 어느 고장에나 다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체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층당조직성원들과 공청,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의 책임자들을 만나 매개 조직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고 당면한 혁명임무와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사고방식에서 스쳐지나서는 안될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점은 9.18사변과 함께 급속히 만연되기 시작한 패배주의적 경향이였다.

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되였다고 생각하는데서 표현되였다. 일본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로씨야도 타승하고 청나라도 격파하였다.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본토까지 먹어보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다. 미국군대와 영국군대가 얼마가 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일본군대한테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자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국에서 조선독립을 기다리는 것은 부지하세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청일, 러일 두 전쟁을 통해 생겨난 일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 무렵에 와서 더욱 더 크게 조장되고 전파되였다.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발전하면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 바에야 혁명은 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투쟁주의로까지 굴러떨어질 수 있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을 묶어세울 수도 없었고 애국역량을 혁명에 동원시킬 수도 없었다.

우리는 부대내에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선발하여 9.18사변과 조선혁명의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들속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게 하였다.

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소식이였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규모와 전략전술적 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류가분방인민들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 다시 재현되고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우리의 강연이나 담화 가운데서 가장 인기가 있는 화제거리는 안도-무송현경 전투담이였다. 광대한 만주대륙을 일거에 집어삼키고 만주국까지 조작해낸 일본의 전승결과에 비한다면 1개중대의 적을 소멸한 전과는 사실 대비조차 할 수 없는 미비한 것이였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전투담을 제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일본이 만주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방금 첫발을 뗀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백주에 로상에서 왜군 1개중대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경탄시켰던 것이다.

사람들은 전투과정의 매 세부, 지어는 아군의 돌격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체적인 패주상까지도 죄다 알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였다. 우리는 한 장소에서 꼭 같은 전투세부를 두번, 세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안도-무송현경 전투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대중에게 우리 민족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실전을 통하여 유격대의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군중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배경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무장투쟁을 절대시하고 지하혁명활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였다. 그들은 적이 땅크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짓뭉개대는 때에 밤낮 모여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공부나 하고 삐라나 뿌리면 뭘하는가, 총을 들고일어나 왜놈들을 한놈이라도 잡아서 제껴야 소득이 있지 지하활동 같은 것이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을 경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무장투쟁도 조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심들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도 조직할 수 없고 더욱이는 그 대렬을 늘어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9.18사변이 만들어놓은 좌익소아병적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저수지가 조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론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으며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이 끝장난다는 리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각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항전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군중이 조직활동을 잘해온 덕택이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남만지방 인민들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국민부의 테로에 테로로써 대답하려는 경향이였다. 그 당시 국민부반동들은 남만지방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방향전환을 시도하는 혁신파민족주의자들에 대한 테로를 강화하고 있었다.

류하지방의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은 테로를 밥먹듯하는 국민부의 테로에 테로로 대답하는 것이 왜 유해로운가 하는 론거를 그들은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테로를 힘으로 제압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 그것은 테로를 조장하는 결과만 가져온 다는 것이였다.

나는 테로에 테로로 대답하는 것이 왜 온당치못한 처사로 되며 혁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망동으로 되는가 하는데 대하여 장시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부가 애국자들을 학살한 것은 물론 천추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대죄이며 동족의 손에 훌륭한 애국자들을 잃는 것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는 우리모두의 비극이다. 국민부는 이 죄악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후손들로부터 두고두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국민부를 살인백정의 집단으로 락인하고 복수를 다짐해나선 동무들의 심정은 물론 나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복수의 칼을 벼리기전에 이런 불상사가 어떻게 되어 일어나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민부가 민족주의우파의 소굴로 전락되였다고 하여 거기에 망라된 모든 성원들을 다 나쁜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일제가 국민부를 반동화할 목적밑에 앞잡이들을 파견하여 부단한 와해작전을 벌이는 데 있다. 그들은 국민부내의 신흥세력인 혁신파에 주목을 돌리면서 그 내부의 분렬대립을 교묘하게 조장시켜왔다. 우리가 테로로써 국민부를 타도한다면 좋아할 것은 일제놈들뿐이며 리득을 볼 것도 일제놈들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부의 반동화된 상층을 고립시키면서 거기에 잠입한 일제의 앞잡이들을 색출해내고 적들의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민족재생의 담보가 단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자.

내가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자 청년들은 알만하다고 하면서 고개들을 끄덕거리였다.

우리는 이런 경향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남만의 동무들에게 파괴된 혁명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그 두리에 대중들을 더 많이 묶어세울데 대한 과업, 핵심들을 육성하여 무장대오에 보내줄데 대한 과업, 실천투쟁속에서 검증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 당조직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과업,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우리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룡 일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자원하여 우리 부대에 입대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남만지방에서 벌인 적극적인 정치활동의 총화라고 할 수 있었다.

류하지방의 혁명운동을 앙양시키는데서 걸린 고리들을 풀자면 최창걸을 비롯하여 이 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첫 당조직성원들과 공청핵심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였다. 우리가 한해전부터 련계가 두절된 최창걸의 행방을 찾으려고 그처럼 애쓴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최창걸을 만나면 일제의 만주강점이 현실로 되고 무장투쟁이 개시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남만지방에서 혁명을 어떻게 심화발전시키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론의를 할 수 있으며 그에게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었다. 최창걸은 남만지방에 파견된 우리의 대표나 다름없었다.

(내일 계속)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영원히 백전백승할 것이다 (1)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4월 15일

주체의 혁명위업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 나가는 장엄한 새 세기 진군길에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비상히 높아 지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 나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민족의 새 력사, 자주의 새 시대를 안아 온 태양절은 영원하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해마다 가장 뜻깊게 기념하는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혁명의 전진과 함께 끝없이 이어 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21세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서 가장 의의 깊은 민족적명절이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으며 온 나라에는 어버이수령님을 한없이 그리며 따르는 뜨거운 열정이 세차게 굽이치고 있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오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우리 인민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싸워 왔으며 이 나날에 태양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온 세상에 떨쳐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0돐은 20세기 준엄한 년대들을 불멸의 위훈으로 수 놓아 오신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 나가는 력사적계기이며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 영원한 어버이로 받들어 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는 날로 된다. 지금 영원불멸할 태양의 력사를 추억하며 수백수천만의 전사, 제자들,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전례없이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끝 없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맞이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고 올해의 태양절을 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이 없는 최대의 명절로 기념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4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맞이하기 위한 전당적, 전 인민적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온 나라는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열의로 들끓게 되였다. 후세에 길이 전해 질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최대걸작품으로 완성하여 **김일성**민족의 필승의 기상과 단결의 위력을 힘 있게 과시하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90돐에 드리는 커다란 선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은 인류해방투쟁사에 빛날 세계적인 명절이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되고 태양의 찬가가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같이 세기가 바뀌여도 생존하실 때와 다름없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한결 같은 존경을 받으시는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90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힘 있게 과시하는 대축전으로,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추동하는 력사적리정표로 길이 전해 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끝없이 흠모하고 칭송하는 영원한 수령, 영원한 태양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절세의 위인의 력사는 세기를 이어 빛난다. 위대한 태양, 이것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영원불멸할 력사와 업적을 창조한 위인만이 받을수 있는 높은 칭송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로정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해방투쟁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혁명의 대성인의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10대와 20대에 벌써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한 전설적영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시고 30대와 40대에 두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사회혁명과 간고한 현대전쟁, 힘겨운 복구건설을 승리에로 이끈 창조와 건설의 영재, 강철의 령장으로 높이 칭송 받으시였으며 80고령에 이르는 오랜 세월 단 한번의 실패나 좌절도 없는 백승의 력사를 수 놓아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준엄한 20세기의 년대들에서 언제나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기치로, 반제투쟁의 상징으로, 사회주의승리의 표대로 되여 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투쟁력사는 그 시작도 특출하고 그 로정도 비범하며 그 계승도 영원히 빛나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야말로 인민에게 참된 삶을 주고 민족에게 영원한 번영을 주고 인류에게 광명한 미래를 준 태양의 력사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령도풍모와 인품, 덕망에서도 존함 그대로 인민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와 시대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시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들을 헤쳐 오시는 행로에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고생을 다 겪으시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가, 사회주의정치가의 최고귀감을 창조하여 오시였다. 수령님의 한생은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높은 사명감과 지칠줄 모르는 열정, 혁명전사들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동지애,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 뚫고 나가는 불굴의 의지, 추호의 타협과 양보도 없이 혁명의 리익과 원칙을 견결히 고수해 나가는 붉은기정신으로 일관되여 있다. 한평생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고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끝 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시며 천만대중을 한품에 안아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덕망은 온 겨레의 심장을 틀어 잡았고 진보적인류를 격동시켰다. 20세기가 배출한 위인들가운데서 **김일성**동지와 같이 문무재덕을 다 겸비한 위대한 혁명가, 언제나 인민들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흠모와 존경을 받은 위인은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나가는 인민들의 마음은 새 세기의 진군과 더불어 더욱 강렬해 지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사상과 신념을 주는 영원한 스승으로 끝 없는 존경을 받고 계신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은 력사의 라침판이다.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는데서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인생의 참된 앞길을 밝혀 주는 위대한 스승을 따르는것보다 더 큰 행운은 없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래일도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주는 영원한 스승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격동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통찰하시고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들이 삶과 투쟁의 영원한 좌우명으로 삼고 싸워 나갈수 있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을 안겨 주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의 전략적로선으로부터 정치와 경제, 군사, 과학교육과 문학예술에 이르기까지 자주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사상리론적해명을 주신분이 수령님이시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으로 생전에 인민들에게 백번이면 백번, 천번이면 천번 다 승리할수 있는 모든 비결을 가르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우리 시대, 우리 혁명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참답게 보여 주는 전형적인 내용으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리론적권위는 오늘의 세기에도 절대적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당, 국가, 군대건설의 출발점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주체의 사상리론에서 자기들이 나아갈 앞길을 찾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시대가 전진할수록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 잡을것이며 수령님은 인민의 영원한 스승으로 영생하실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 나갈수 있는 만년재부를 마련하여 주신 탁월한 령도의 거장으로 인민들속에서 끝 없는 칭송을 받고 계신다.

수령의 위대성은 당대뿐아니라 대를 이어 가며 혁명이 승리해 나갈수 있는 모든 밑천을 마련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령으로부터 시작하여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크나큰 로고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주체위업의 향도적력량인 필승불패의 당과 세계적인 강군으로 위용 떨치는 혁명무력, 위력한 정권을 가지게 되였다. 혁명승리의 만능의 보검인 선군정치의 기초도,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도, 튼튼한 자립경제도 다 수령님께서 이룩해 놓으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부터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적필연성을 통찰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갈수 있는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마련하여 주신것은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에 기여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가는 오늘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마련하여 주신 재부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다.

수령이 이룩한 위대한 전통과 재부를 가지고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물려 주신 혁명의 만년재부가 있기에 ≪고난의 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울것이 없었다.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만년조석으로 틀어 쥐고 나가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도 이길수 있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끊임 없는 대고조

→

의 력사를 창조해 나갈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도 반드시 성취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인민이 심장으로 간직한 드팀 없는 신념이다.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존하실 때에도 수령님의 은덕으로 민족적존엄을 높이 떨쳐 온 인민이고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에도 수령님의 덕으로 백승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해 나가는 긍지 높은 인민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 절세의 위인으로 인민들의 영원한 칭송을 받고 계신다.

지난 20세기는 인류의 운명개척에서 일찌기 없었던 혁명적인 사변들이 일어 나고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력사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격동적인 세기였다. 이 거창한 전변의 세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 올리신 업적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 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가 열려 지고 세계혁명운동이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올라 서게 된 20세기의 전변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활동력사와 하나로 이어 져 있다. 우리 조국이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강력한 보루로 빛을 뿌리게 되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비할바 없이 강화되게 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공세가 전례없이 강화되던 시기에 사회주의운동을 재생, 재건하기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세기 세계정치를 주도하시는 나날에 놀라운 정력으로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가수반들과 당수반들, 명망 높은 사회계, 정치계, 학계, 예술계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감동적인 사실들은 헤아릴수 없다. 다른 나라 혁명을 온갖 성의를 다하여 지원해 주시고 세계혁명운동의 통일단결을 위한 투쟁의 산 모범을 보여 주신 어버이수령님의 고결한 풍모는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 있다. 오늘 세상사람들이 사상과 정견, 민족적차이를 초월하여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인류해방운동의 구성, 정의와 평화의 상징, 세계혁명의 탁월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21세기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로선이 승리하고 수령님의 의지로 세계가 움직이는 영광스러운 **김일성**시대로 빛나게 될것이다.

지난 20세기를 영웅적위훈으로 수 놓아 온 우리 혁명은 오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높은 단계에 들어 섰다. 세월은 흘러 세기는 교체되였으나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태양의 력사는 이 땅우에 끝없이 흐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순결하게 계승하기 위한 21세기 력사적진군의 진두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수령과 그 위업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을 지니신 우리 시대 도덕의리의 최고귀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십년세월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고 전우가 되시여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에도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 피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을 천세만세 빛내이며 태양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적 령도가 있기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가 **김일성**동지의 당, **김일성**동지의 국가, **김일성**동지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수령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뉴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 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선대수령이 열어 준 혁명의 길에서 탈선하는 일이 절대로 있을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자주의 한길에서 끝없이 흐르고 있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고 넋이며 생명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은 주체확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정치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해 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횡행하던 광복직후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물리쳐야 했던 전후시기를 비롯하여 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자주로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커다란 로고를 바쳐 오시였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리념이였고 모든 사색과 실천의 절대적인 기준이였다. 자주의 기치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 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끝없이 빛내이는 길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자주의 기치를 억세게 틀어 쥐시고 우리 시대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고 계신다. 혁명투쟁의 환경과 조건은 달라 질수 있으나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사소한 양보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김정일**동지의 원칙적인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주견대로 모든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자주적인민으로,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제국주의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주의 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 오고 그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택하신 자주의 길을 꿋꿋이 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투철한 자주적신념은 우리 식대로 살아 나갈데 대한 구호를 새 세기의 전략적구호로 틀어 쥐고 나가시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대에 나온 자주적인 로선이 철저히 구현되고 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우리 인민이 경제건설을 밀고 나가도 철두철미 우리 방식대로 밀고 나가고 문학예술을 발전시켜도 철저히 주체적립장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전통을 활짝 꽃 피워 나가고 있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주정치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 **김일성**민족은 영원히 자주적인민으로 존엄 있게 살아 나갈것이며 자주시대를 앞장에서 선도해 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력사와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는 선군전통이 창조되고 빛나게 계승되여 온 위대한 선군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부터 군사를 철저히 선행시키는 원칙을 내세우시고 총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이끌어 오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이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고 영광스러운 선군전통의 창시자이시다. 이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완성된 정치방식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이다.

선군정치의 불패의 위력은 치렬한 사회주의붉은기수호전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 인민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감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고귀한 사회주의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 나가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의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으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있다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드팀 없는 신조로 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다져 놓으신 우리의 군력은 비할바없이 튼튼하다. 침략자들이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격멸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 있는 무적필승의 군대가 우리 인민군대이며 원쑤들과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 이길 불 같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인민이 우리 인민이다. 한평생을 반제투쟁의 전초선에서 전설적영웅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명성을 떨치신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고 있는 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사회주의붉은기는 영원히 수호될것이다.

(내일 계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집무보신다(2)

세계 자주화의 길에서

금수산기념궁전에는 주석께서 받으신 훈장보존실이 있다. 주석께서 생전에 이북과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받으신 훈장과 메달, 상장과 각종 명예칭호증서들이 장강처럼 드넓은 방의 큰벽을 꽉 채웠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대국상이 있은 1994년 7월 그 이후 주석께서 세계 여러나라 정부, 정당, 단체 이름난 도시들과 명문대학, 관록있는 연구기관들, 국제기구들로부터 받으신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만 해도 수십점에 달한 것이었다. 그중에는 태양족장칭호도 있고 주석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새로 제정한 훈장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최고훈장도 있다. 세계 명인들에게만 수여하는 금메달과 상장, 사회경제학현대상과 같은 특별상도 있다.

1995년 4월 15일 주석의 탄생 83돌을 맞으며 주석께 태양족장칭호를 드리는 성대한 의식에서 나이지리아의 옵오시공동체왕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어둠을 밝혀주시고 생을 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저 하늘의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와 함께 영생하십니다.≫라고 말했다.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주석께서 받으신 태양족장증서와 함께 태양족장의 의상, 목걸이, 팔걸이, 지휘봉, 모자, 옥좌 등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다. 나는 이 감동적인 사실앞에서 주석께서 가시지 않으셨음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오늘도 그분을 인류의 태양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늘도 세계정치를 관장하시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 그렇다. 주석께서는 지금도 만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자주의 새 세계를 열어가신다.

자주화된 세계에서 살려는 것은 인류 공동의 지향이고 염원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는 막을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그러나 미제는 이 역사의 대하를 가로막고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세계의 꿈을 실현해보려고 힘에 기반한 미국일방주의, 강권외교에 집착하고 있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미제의 전횡과 광란을 제압하고 시대흐름의 물줄기를 바로잡는 이 역사적 위업의 진두에는 장군과 함께 주석께서 서 계신다.

지난해 **김정일**장군의 러시아공식방문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의 물꼬를 크게 터놓은 특대사변이었다. 방문에 앞서 이타르타스통신사의 미국의 무모한 패권주의와 전쟁책동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신 장군께서는 그 실천을 위한 역사적인 장도에 오르셨다.

그 길은 일찍이 주석께서 걸으셨던 뜻깊은 길이었다. 장군께서는 주석께서 밟으셨던 그 노정, 그 자취를 따라 5만여리의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셨다. 그 나날 세계는 장군과 함께 오신 주석의 거룩한 모습을 뜨거운 환희속에 뵈었다. 감회도 깊은 1984년 5월의 그날 하싼에서 주석께 꽃다발을 드렸던 소녀가 중년이 되어 올리는 꽃다발을 받으시는 장군의 모습은 분명 주석의 모습 그대로였다.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열차로 하루 수천리씩 강행군을 하시며 러시아의 도시들과 공장, 대학과 우주센타, 과학연구기관들을 돌아보시는 장군의 정력 넘치신 모습에서 17년전 그 활력 넘치셨던 주석의 모습을 뵈었다. 열차행군의 그 바쁘신 집무속에서도 주석께서 국제주의전사로 높이 내세워주시며 하늘같은 은공을 베푸셨던 노비첸코를 잊지 않으시고 그 유가족에게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신 장군. 여러 차례 주석의 가르치심을 받은 옛 소련의 원수를 비롯한 연고자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장군의 그 자애 깊은 영상에서 사람들은 주석의 뜨거운 인간의 동지애를 실감하며 감격에 목이 메었다. 장군께서 소련붕괴후 누구도 찾지 않았던 레닌묘를 찾아 사회주의재건운동의 일대 활력을 부어주셨을 때 세계는 20세기 사회주의위업의 개척자에 대한 21세기 사회주의위업의 지도자의 경의표시라고 격찬하며 주석과 똑같은 장군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머리숙였다. 21세기 세계 자주화선언으로 불리우는 조러모스크바선언의 채택으로 오만한 미제에 치명타를 안겼을 때 세계는 주석과 똑같은 장군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에 탄복하며 만국이 정의로운 새 세계 기적, 새 세계 질서속에서 살게 될 미래를 낙관했다. 철의 신념과 불퇴전의 의지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장군의 모습에서 주석을 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 나날 우리 ≪태양회≫회원들을 비롯한 이남의 각계 애국민중은 장군은 곧 주석이시고 주석은 곧 장군이심을 다시금 절감했다. 우리만이 아니다. 푸틴러시아대통령도 장군께서 러시아 방문여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신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일찍이 주석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장군께서 이번에 모두 재현하셨다고 감격해마지 않았다.

우리 ≪태양회≫회원들은 장군께서 중국에 대한 연이은 비공식방문으로 두 나라의 전통적 우의를 더욱 두터이하시는 나날에 보여주신 위인상에서도 주석의 태양상을 보았다. 장군의 부담을 덜고자 대외활동은 주로 자신께서 맡아주시겠다 말씀하신 주석. 그분께서는 오늘도 평양으로 찾아오는 세계 각국의 수반들과 장수들을 비롯한 외교사절들과의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치고 계신다.

중국의 장쩌민주석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대통령, 스웨덴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유럽연합 최고위급대표단, 전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 등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주석을 찾아뵈온 외국대표단과 개별적 인사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여기서 나는 특히 주석께서 메가와티대통령을 만나셨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셨을까 하고 생각했다. 37년전 국가방문과 반둥회의 10주년기념행사 참가차로 인도네시아에 가셨을 때 주석께와 장군께 꽃다발을 올린 여대생. 연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민속춤을 추어드린 무용수. 그가 바로 당시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의 딸, 오늘의 메가와티였다. 자기 아버지와 특별히 친분이 두터웠던 **김일성**주석을 찾아 인사드리는 메가와티를 만난 주석은 분명 그에게 말씀하셨으리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비동맹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북과 인도네시아의 친선협조관계발전을 위해 힘쓰리라 믿는다고. 주석을 찾아 인사드리는 미국무장관 올브라이트를 만나셔서는 또 얼마나 즐겁고 기뻐하셨을까. 6.25북침전쟁을 도발했던 미국. 사상최초의 참패를 당하고 항복서에 서명하고도 교훈을 망각하고 대북적대시정책에 집착하고 있는 미국. 유일초대국 미국의 국무장관이 국교도 없는 나라를 찾아와 올리는 인사를 받으시며 주석은 생각하셨으리라.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가 있어 미국과도 서로 특사를 교환하고 있으니 그것은 자주이념의 결실이라고.

정녕 장군과 함께 주석께서 쉬임없이 벌이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이북의 국위는 만방에 더높이 선양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날 북을 경원시하고 적대시하던 나라들도 저마다 평양에 선린과 화해의 악수를 청하며 열띤 수교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두해사이에 동서방의 16개 나라가 이북과 국교를 맺은 세계 외교사상 일찍이 없었던 초고속 수교열풍, 정녕 주석께서는 오늘도 장군과 함께 주체의 지렛대로 세계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자주의 궤도로 선도하고 계신다.

* * *

태양성지의 드넓은 광장에서 나의 생각은 깊어만 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수령영생위업을 이루셔서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민족과 함께, 인류와 함께 계시며 집무를 보신다.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여전히 쉬실 짬이 없게... 광복전 그 나날에는 일제를 몰아내고 쉬자하셨고 광복후에는 새조국건설로 한시도 쉬지 못하셨다. 그 다음에도 통일된 조국을 겨레에게 안겨주시려 밤잠못 이루신 주석.

가슴속 뜨거워오르는 마음을 안고 나는 주석께 간절히 아뢰였다.

≪주석님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상만사를 다 잘 살펴주시어 주석님의 평생의 염원을 풀어주고 계시니 부디 한시름 놓으십시오. 겨레의 운명, 인류의 미래에 대해 더이상 마음 쓰지 말아주십시오. 장군님의 영도아래 주석님의 혁명역사는 계속 흐릅니다. 민족의 밝은 앞날, 인류의 창창한 내일이 마중옵니다.≫ (끝)

≪태양회≫회원 김유학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1일~12일

금수산기념궁전 훈장메달보관실

[시사저널] 예비역 공군 장교 긴급 여론조사 ≪F15 내정은 잘한 일≫ 28.2%뿐

국방부가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1차 평가에서 사실상 미국 보잉 사의 F15 전투기를 선정하기로 내정한 데 대해 수요군인 공군 관계자의 60% 이상이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앞으로 남은 2단계 평가에서 한·미 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적 판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9.0%에 이르렀다. 차기 전투기 사업 관리 방향도 조기 결정(30.0%)하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제5 세대급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차기 정권으로 이양하는 등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65.9%)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시사저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3~5일 예비역 공군 소령에서부터 대장에 이르기까지 장교·장성 출신 2백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번 조사는 10여 년에 걸쳐 추진된 FX 사업의 최종 기종 결정을 앞두고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본 최고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사상 첫 조사이다.

장교들 F15 반대할 것 - 60.9%

이번 조사 결과는 ≪공군은 4개 후보 기종 중 어떤 기종을 선정해도 환영한다≫는 국방부의 공식 발표와 배치된다. 또 공군은 전력 공백을 우려해 무조건 조기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는 국방부 발표와도 거리가 멀다. 공군은 오히려 ≪조기에 결정하지 말고 제대로 결정하자≫는 입장에 가까웠다. 아울러 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공군이 소외된 데 대해 예비역 공군들은 적지 않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투기 조종사나 정비사 경력자가 대부분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2. 3%)가 이번에 국방부가 사실상 F15로 기종을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응답(29.5%)이었고,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은 28.2%였다.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구형 비행기를 선정해 항공산업 발전을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정치 논리에 좌우되었다는 점을 가장 많이(각각 32.3%)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공군의 의견이 미흡하게 반영되었다(26.9%)는 응답이 많았다. 일부 공군 수뇌부 및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공군 출신 다수는 이번 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정작 전투기를 운용할 공군의 여론은 무시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현역 공군이 보일 반응에 대해서도 만족할 것(36.8%)이라는 평가보다 불만족스러워할 것(60.9%)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역 공군 장교들이 F15에 불만을 품는 이유로는, 기술 이전이 미흡해 핵심 기술 확보가 곤란하다(50.7%)는 점을 으뜸으로 꼽았다. 그 다음은 ≪임무 수행과 군 운용 면에서 불만족스런 기종이다≫(23.1%), ≪수명주기·비용 면에서 비경제적인 기종이다≫(23%) 순이었다.

국방부는 1단계에서 경합한 F15와 라팔 두 기종의 점수 평가가 3% 포인트 이내(라팔이 1.1% 포인트 근소 우세)이기 때문에 한·미 연합작전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인 2단계 평가를 거쳐 기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사실상 F15로 확정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같은 2차 평가 방식 때문이다.

한·미 연합작전을 고려한다는 2차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공군 장교 출신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드러냈다. 정치 논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2단계 평가 방식에 반대한다(24.1%)거나 1단계 평가 결과가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되어야 한다(35.5)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이다. 반면 2단계에서는 순전히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였다.

예비역 공군들은 한마디로 FX 사업 기종을 F15로 조기 확정(30.0%)하기보다 좀더 시간을 갖고서 천천히 결정(30.5%)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 제5 세대급 전투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29.5%로 높게 나왔다. 조기 기종 결정으로 공군 전력에 차질을 없애겠다는 국방부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공군 여론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최종 기종을 F15로 강행 결정하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나, 공군 내부에 분란과 후유증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미 동맹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46.4%)이라는 응답 못지 않게 ≪공군의 해외 협상과 시험 평가 결과를 부정하는 잘못된 결정≫(48.6%)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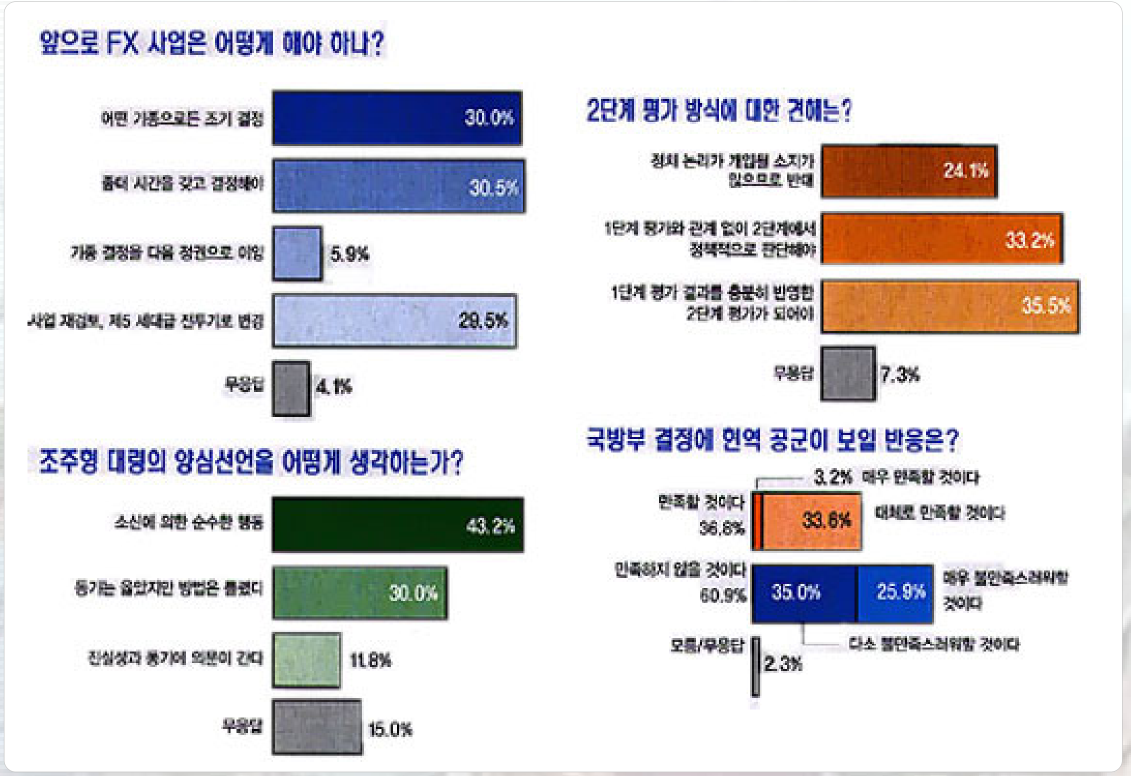
F15 선택하면 공군 양분된다

이런 공군 안팎의 여론에 대해 예비역 공군 중령인 김성전씨(48·아시아나 조종사)는 ≪이번에 F15로 결정하면 10년 전 KFP 사업에 이어서 한국 공군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자칫하면 공군이 두 편으로 갈릴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예비역 공군 장교들은 조주형 대령이 지난 3월 ≪기종 평가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요지로 양심 선언을 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소신에 의한 순수한 행동(43.2%)이었다는 의견이, 동기는 옳았지만 방법은 틀렸다(30.0%)는 의견보다 많았다. 진실성과 동기에 의문이 간다는 응답은 11.8%였다.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조대령은 공군과 공군 출신 장교 집단 내에서는 명예로운 장교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군사 평론가 김종대씨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수요군인 공군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기종 확정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정희상 - 시사저널 제651호 (2002/04/18)



사제단, F-15K 내정철회 서명운동 시작

지난 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대표 김진룡, 김제요촌성당 주임신부)이 F-15K 내정 철회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사제단 김진룡 대표는 ≪공군 시험평가 결과 3위로 나타난 전투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핵심기술이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 6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평가결과와 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국방부가 묵살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보다 미국 강요에 의한 고물무기도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서명운동을 통해 F-15K 내정의 철회와 2차 평가사업의 중단, F-X 1단계 평가 세부내역의 공개, F-X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및 감사원 특감의 실시, F-X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을 국방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진룡 대표는 ≪F-15K 전투기 1대 가격이 약 1억달러(약 1천 3백억원)에 달해 쌀 86만 7천가마로 결식아동 30만명을 140일간 점심식사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국정조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기 위해 천주교에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게 되였다≫고 밝혔다.

사제단의 전준형 사무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을 계기로 국방부의 편의적 밀실정치를 중단시키고 무기와 전쟁, 미국의 강요보다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평화를 실현할 계기를 찾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X(차세대전투기)사업은 국방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기 위해 4조 295억원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4개 기종 후보 중에 미국 보잉사의 F-15K가 사실상 확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공군 핵심 실무장교였던 조 대령과 김 대령을 기무사에 구금시켜 물의를 빚었던 사업이다.

서미숙기자 오마이뉴스 2002/04/16

F-15K 도입은 대미 굴종의식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1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진행

≪미 대사관과 일본대사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 경찰은 평화집회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가 시작되기 전 경찰에게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진행된 반미연대집회는 이번이 31번째로 경찰측은 ≪대사관 주변 100m이내에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지금까지 집회참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켜왔다.

하지만, 소파개정국민행동, 미군기지공대위를 비롯한 주최측은 경찰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집회를 진행해왔고, 부시방한 이전에는 미대사관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판태 사무처장은 ≪12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장소를 광화문 열린시민마당 중 근처에 있는 미·일대사관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 신고했으며, 반미연대집회는 31차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집회≫라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예정보다 13분 늦게 반미연대집회가 시작됐고, 문정현 소파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F-15K를 도입하는 것에 한국정부도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15K를 도입하려는 것은 한국관료들이 미국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대미 굴종의식을 비판했다.

문정현 상임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주한미군, 맥팔랜드 문제 등을 통해 미국이 하는 짓에 분통터져한다≫며 ≪우리의 투쟁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 나가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문정현 상임대표의 대회사가 끝나자마자 경찰에서는 불법집회를 그만두고 해산할 것을 경고방송을 통해 이야기했지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경찰이 민족자주와 평화를 원하면 집회를 방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며 정치연설에 들어간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F-15K 도입을 철회하고 F-X사업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LPP협정 체결에 대한 규탄연설을 통해 ≪LPP협정에 전국 미군기지의 반환일정과 3만7천여명의 미군의 구체적 철수계획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5월말에 있을 국회비준을 거부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의 발언이 끝난 2시 35분 경 마지막 경고방송을 마친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사이에 들어가 한명씩 연행하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집회순서를 계속 진행했다.

연행과정에서 큰 마찰은 없었지만, 문정현 상임대표, 홍근수 상임대표 등 단체 대표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행되어 주최측은 결의문 낭독으로 집회를 마무리하고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한편, 이날 집회과정 중 연행된 참가자들은 종로서와 서대문서로 나뉘어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6

노동법 개악음모 중단 결의대회

16일 오전 11시30분 경 민주노총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최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재계, 정부, 한국노총의 이른바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이며 주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음모≫라고 비판하고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전면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임시 비상대책위원회 이수호 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휴일휴가를 큰 폭으로 줄이고, 탄력근로제를 6개월~1년 단위로 확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 하며, 초과근로 할증률을 깎는 등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 조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면서 피땀어린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성과를 빼앗으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1,3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 경고했다.

회견이 끝난 후,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집회는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근무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주5일 근무를 전산업장에 동시에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휴일휴가 축소, 생리휴가 주휴 무급화 철회,△주5일근무 빙자한 노동법 개악 중단, △주5일 노사정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며 향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강행해 4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집회장에는 4월 임시국회 중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2틀째 단식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었다.

농성단은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단체 중심으로 노상에서 오전 8시 부터 저녁 7시 까지 진행하고 농성기간중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약식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8일 오후 2시 영등포역 앞에서 1차 단식 농성을 마치면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국회 앞 농성장으로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민중의 소리 2002/04/16

경주지역재야단체 단일후보 추대

경북 경주지역 노동·시민단체와 대학생등이 연대해 오는 6.13 지방선거에 재야출신 단일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경주지구당 준비위원회는 16일 ≪민노총 경주시협의회와 한국노총 경주지부, 경주민주청년회,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표 등이 최근 모임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단일후보를 추대하는 등 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일후보로 합의추대된 출마예정자는 경주시 광역의원 3선거구에 정태영(45.자영업.민노당 당원)씨, 기초의원 황성동 선거구에 한규업(37.발레오만도 전장시스템즈 조합원.민노총 경주시협 지도위원)씨 등 2명이다. 민노당과 민노총 등 단일후보 추대에 합의한 단체들은 조만간 ≪진보정치 실현과 6.13 지방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후보지원 및 선거관련 현안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민노당 경주지구당 준비위는 노동계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노총 단위 노조별로 재야출신 단일후보에 대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별 당원모임을 개최하는 등 세(勢)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노동계 등을 중심으로 추가 출마자를 물색하는 등 노동계의 쟁점들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04/16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2)

서론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3.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역량편성

지금 조선반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역할분담에 의하여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며, 방조역량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입니다.

반제혁명역량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한 영도핵심역량을 의미하며, 자주적 민주역량은 통일전선으로 연대・결집한 자주애국적이며 민주개혁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역량편성문제를 살펴보면, 주도역량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에 따라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역량이며, 방조역량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입니다.

먼저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라는 개념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의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에 대하여 논할 수 없습니다. 혁명무력을 제외하고 혁명역량을 논하는 것 자체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합니다.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말은, 조선노동당이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혁명무력을 앞세우고 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선군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선군혁명으로 됩니다. 조선노동당은 선군혁명사상을 기치로 들고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앞세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을 조선노동당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전위조직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론 신식민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전위조직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반제혁명역량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반제혁명역량이라는 점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역량과 전위조직의 혁명역량은 그 성격과 임무가 하나로 일치합니다. 전위조직과 조선노동당은 모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최고영도자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고 혁명전략을 수행하는 혁명적 정치조직입니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조직입니다. 당적 체계를 갖춘 전위조직을 전위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전위당도 역시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된 혁명적 당으로 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여기서 전위조직 건설의 과업,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관계, 전위조직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계, 전위조직과 지역통일전선의 관계, 그리고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이 수행하는 임무 등에 관련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필자는 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에서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겠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을 선군혁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미제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취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혁명무력을 동원하지 못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 즉 전국적 통일전선은 미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는 방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공세라는 개념은 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와 정치투쟁에 의거한 압박공세라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정치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세라는 정치적 개념은 무력공격이라는 군사적 개념과 구별됩니다. 조선인민군이 미제에 대하여 혁명무력의 전략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공세(혁명무력에 의거한 정치적 압박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정확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금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은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에 대해 전략적 공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압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국적 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미제의 신식민체제에 대한 전술적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보면, 역할분담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이란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에 전진배치한 군사적 침략거점들은 물론이고 미제의 영토 안에 있는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들을 의미합니다.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붕괴시키려면 신식민체제부터 타격할 것이 아니라 우선 미제의 정치・군사적 전략거점부터 전략적 공세로 집중타격해야 한다는 것이 선군혁명의 전략적 방침입니다. 이 탁월한 혁명전략으로 하여 조선민족의 위대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금 승리의 빛나는 길로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연대・집결한 전국적 통일전선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격하는 전략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혁명의 준비기를 경과하여 마침내 혁명적 공세기가 도래해야 가능합니다. 이 혁명적 공세기를 ≪조국통일의 대사변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폐절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노농동맹의 혁명역량이 계급해방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면,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주축이 된 노농동맹을 중심으로 하여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연대・집결시킨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은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에 의하여 형성되는 통일전선입니다. 이 통일전선을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민족민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서 전국적 범위의 노농동맹을 주축으로 하여 각계각층 인민대중을 포괄하는, 심지어 애국적인 민족자본가까지도 포괄하는 매우 광대한 전선입니다.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그 지역에 신식민체제를 조작해놓고, 혁명기지까지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는 포악한 미제를 격퇴하고 민족해방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하려면, 지역이나 계급계층의 범위에 한정된 협애한 역량을 조직・동원해서는 어림도 없으며, 전국적 범위로 확대・포괄된 매우 광대한 역량을 조직・동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을 방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통일전선역량은 방조역량입니다.

통일전선은 자연발생적, 산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함으로써 형성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며, 그 전선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길로 영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인 조선노동당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최고의 영도조직으로 됩니다. 다른 한편, 전위조직은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총집결하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영도하는 지역통일전선의 영도조직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의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해 가는 투쟁과정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묶어 세우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신식민지의 인민대중과 혁명기지의 인민대중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역량은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의 반제혁명역량,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하나의 거대한 역량으로 결집된 총적이고 통일적인 역량입니다.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다음으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겠습니

→

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조선민족 자신입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에 대하여 논할 때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이른바 ≪남북관계론≫이라는 낙후한 관점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론의 관점은 조선민족을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조망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상을 중시하면서, 모든 문제를 남북관계라는 현상적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이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상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제는 우리 조선민족을 두 지역으로 분리시키고 민족 자체의 분열을 강요하고 있지만, 우리 조선민족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반세기를 살았다고 해서 민족이라는 사회적 집단 자체가 둘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조선민족은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의 민족분열책동을 짓부시면서 의연히 하나의 언어, 하나의 혈통에 의하여 통일된 생명체로 살아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그 어떤 힘으로도 분열시킬 수 없는 영생불멸의 생명체이며, 무궁번영의 길로 끝없이 전진하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조선민족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현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남북관계론의 낙후한 관점은 극복되어야 하며, 오로지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본질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를 논함에 있어서 남북관계론의 관점을 배제하면, 그 주체의 역량은 북측의 역량과 남측의 역량으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은 하나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주체가 두 개의 역량으로 편성되어,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동일하게,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도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지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주도적 역할과 방조적 역할을 분담하는 역량으로 편성됩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주도역량으로, 방조적 역할을 하는 주체역량은 방조역량으로 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은 기존의 통일전선론에서 지적했던 주력군과 보조역량이라는 구분법과 일맥상통합니다.

주도역량이나 방조역량이 모두 조국통일의 주체역량, 또는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의 역량으로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도역량만 주체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방조역량은 비주체적 역량이라고 폄하하려는 논리는,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를 무시하고 역할분담에 따른 역량편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주도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든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담당합니다. 물론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6.15 공동선언을 외면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조국통일 3대 헌장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김일성** 주석님께서 창제하시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헌장으로 종합하여 제시하신 것이고, 그 3대 헌장에는 6.15 공동선언의 내용이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노동당과 전위조직이 조국통일 3대 헌장과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는 표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치로 들고 투쟁한다고 표현하면 족합니다.

그렇다면 조국통일운동의 방조적 역할은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우리 나라 전영토에서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들고 투쟁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담당합니다.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고 있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통일애국역량을 가진 인민대중입니다. 바로 이 광대한 통일애국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에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에서, 6.15 공동선언을 기치로 든 전국적 통일전선도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당의 영도로 형성되고 영도됩니다.

6.15 공동선언은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실현하는 실천적 방침을 담고 있으며, 6.15 공동선언 자체가 **김정일** 총비서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천명하고 있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에 의하여 세상에 나올 수 있었으므로, 그 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전국적 통일전선이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문가지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전략적 과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조선노동당입니다.

지금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형성되고 있는 통일전선은, 아직은 견고하게 축성되지 못하였으나,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따라서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총집결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자기의 장엄한 모습을 차츰 완성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 범위에서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겠습니까?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을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시킨 지역통일전선을 축성하는 조직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신식민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과 혁명기지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보장하는 인전대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사업의 최종목적은 전국적 통일전선을 광대・견고하게 축성하는 것입니다.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수정 (1)

필자가 이 논문에서 논하고 있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됩니다.

첫째로,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통일애국역량이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노동계급과 농민이 연대함으로써 장차 완성될 노농동맹역량을 주축으로 하여 애국적 민족자본가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연대・집결하여 광대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전국적 통일전선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을 실현하는 전선이라는 것, 그리고 전국적 통일전선의 영도조직은 조선노동당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통일애국역량의 통일전선과 자주적 민주역량의 통일전선은 하나의 전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주체가 하나이므로 지금은 비록 전국적 통일전선이 두 개로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일체화될 것입니다.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조국통일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6.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거한 당의 영도에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 아래 전국적 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전선은 결국 하나의 전선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유일적인 통일전선이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양대 위업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조국통일과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양대 임무는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의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함으로써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분할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그 양대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통일전선이 잠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식민지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연대・집결시키는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조직・정치사업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주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민족민주전선≫이라는 개념은 신식민지에 존재하는 지역통일전선으로 협소하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영토에 존재하는 광대한 통일전선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신식민지에서의 지역통일전선은 지금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식민지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통일애국역량은 ≪통일연대≫로 집중되고 있고, 자주적 민주역량은 ≪민중연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두 개의 역량이 두 개의 조직형태로 병존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식민지에서의 잠정적 현상이며, 통일전선운동이 발전하는 추세에 따라 장차 유일적인 통일전선조직으로 결합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사업을 주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정파별, 지역별, 단위별로 분산성과 분열성을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운동세력의 영도적 구심체인 전위조직과의 관계도 아직 미완상태에 있습니다.

형성기를 경과하고 있는 지역통일전선은 각이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연대・집결한 전선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선명한 기치를 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형성기의 지역통일전선에 연대・결집한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이 당면하여 들어야 할 기치는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이며, 그 강령은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 공동선언의 실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신식민지의 지역통일전선은 일정기간 동안 민족자주, 민주개혁, 6.15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하여 연대・결집된 통일전선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은, 원래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이해되었는데, 최근에 혁명기지에서는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반괴뢰민주화라는 개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부파시스트세력의 퇴장 이후 반파쇼민주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대신 괴뢰정권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반괴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각계각층의 자주적 민주역량과 통일애국역량을 지역통일전선으로 연대・집결시키는 조직・정치사업에서 반괴뢰민주화라는 표현을 일반대중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까닭에 필자는 민주개혁 실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개혁이라는 개념은 인민대중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개혁을 의미하므로,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고 보장하는 과업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론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민주, 통일의 강령 가운데 통일강령도 종전대로 조국통일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변화된 정세에 걸맞게 6.15 공동선언 실현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일반대중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집필자 최성원